

-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29호
8월 5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교단 제72차 총회 제3회 임원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권회복’ 최저 출산국 탈출 전국민 동참해야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예하성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3회 임원회가 지난 7월 20일(목) 오후 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서기 임형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조선남 목사의 기도,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단 6:10 말씀을 본문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다니엘은 죽음 앞에

서도 규칙적이고 겸손하게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 주셨고, 참소한 모든 사람들은 사자 굴 속에서 빠져 부서지는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또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까지 총리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전하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 회계보고, 재무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건의 각종 청원 사항으로 교역자기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역자는 퇴/원로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소전 보고, 군부대위원 방문 일정과 임원회의 일정 등이 보고·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7월 30(주일)일부터 8월 1일(화)까지 대림번영교회 평창수양관에서 개최됨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감염병 공식 종료 선언 후 최근 꽤 많은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잘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의 권고를 강화하여 감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마음을 모았다.

아울러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동성간 결합 법적 가족 인정 및 법적 혜택 반대, ‘생활동반자법’ 제정저지, 또한 말씀예곡으로 영혼을 수련으로 빠뜨리는 사이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복한의 핵무장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 한미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특히 대다수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을 위해, 좌편향 애국된 교과서로 교육이 어긋나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처가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홍보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생활동반자관계법률안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달성 국민들 대부분 생활 동반자관계법 반대한다고 응답

생활 동반자법 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대한 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달성했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생활 동반자법 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대한 청원이 진행되었다. 이번 청원은 개인이 시작하였고, 취지는 아래와 같다.

청원인 신모 씨는 “이 법은 남녀 간에 정식 혼인(혼인 내의 성관계 및 출산 중상)을 하지 않고 손쉽게 함께 살다가 손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간이성(簡易性)을 특징으로 설계된 성인 욕구 충족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생활 동반자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는 공동으로 혼인을 금감, 혼외 출산을 즉 사생아 비율 급증이라는 기속해제 현상을 겪고 있으며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결과 혼외 출생자는 혼인 중출생자보다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고, 성ச்ச로 기증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은 생물학적 부모는 모와 단절된 삶을 산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씨는 “생활동반자법안은 생활 동반자 관계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동성 간의 결합을 합법화한다.”고 했다.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은 커플의 경우에, 이들의 남자 동반자를 ‘남자 떠나라(?)’ 대신에 무슨 용어로 불러야 하며, 또한 딸의 여자 동반자를 ‘여자 시위(?)’ 대신에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외에 사실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하여 법률혼 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으며, 생활동반자법안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결별 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이미 사실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생활동반자법안은 민법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인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 제정 혜택 제공하는데, 이는 “생활동반자법안이 현재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는 동성 결합에 대해서

까지 부부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일인가구, 한부모가족, 양양가족 등에 대해서 이미 법적 보호가 충분하기에 이러한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안이 발의된 것이 아닌 즉, 동성 커플에게 여러 사회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주된 입법목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 결합과 비혼 동거를 합법화하고,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인 생활동반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생활동반자법을 강행 추진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11일 마감일에 법안 반대에 동의한 시민들은 5만 명으로 소위원회 회부된 상태이다.

2023년 7월 21일
정당행동등에비례배분차별금지법안을반대하는 전국연합

토를 적극 지지한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전국 학부모단체연합은 교육부와 한국교총,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국교육회복교육사연합의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초중고생들의 성관계를 금기의 대상에서 ‘원리’로 격상시키고 동성간의 성관계를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특정성향의 지지자로 육성될 것과 교사의 학생 지도 수단을 부정하므로 학생들의 일탈이 증가될 것 등을 우려하여 제정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좌파성향의 교육감으로 인해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의 제정된 지역마다 예견된 폐해는 그대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로 몰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갖은 욕설과 폭행, 법적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폭행하는 제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아동학대로 몰려

교사 직위가 해체되고, 떠드는 학생을 질책했다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하며 수업시간에 지는 학생의 등을 두드려 깨웠다고 성범죄로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욕설과 폭행,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교사로서의 책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잘못된 인권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부모와 교사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교육이라면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대다수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하는 바이다.

2023년 7월 24일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강원교육사립학부모연합, 공교육실리기학부모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교육감독, 교육이렇게?,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립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연합,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립학부모연합, 아이미래, 울은가치시민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울산다세대움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천한말씀국민운동,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립학부모연합, 케이프로라이프,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행동하는엄마들



“교사 폭행, 극단적 선택...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적극 지지 성명 발표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공동상임대표 박은희, 이하 전학연)이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수난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재검토를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지난 7월 24일 발표했다.

전학연은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교육부와 한국교총,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국교육회복교육사연합의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초·중·고생들의 성관계를 금기의 대상에서 ‘원리’로 격상시키고 동성 간 성관계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며, 학교에서 정치사상 교육을 통해 특정 성향 지지자로 육성될 것과 교사의 학생 지도 수단을 부정하므로 학생들의 일탈이 증가될 것 등을 우려해 제정을 반대했다”며 “이러한 우려에도 좌파 성향 교육감으로 인해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제정된 전국 지역마다 예견된 폐해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로 몰려 교사가 학

생과 학부모에게 갖은 욕설과 폭행, 법적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교육이라면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라며 “대다수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교육계, 시민단체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

한기지협, 여주 소망교도소 방문

수감자들 위해 기도하며 위로예배 드려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김동권 목사, 사무총장 한동철 목사)이하 한기지협이 7월9일(주일) 오후 3시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위로예배를 드렸다.

이날 한기지협 사무총장 한동철 목사의 사회로 소망합주단의 찬양, 김진호 감독(상임회장)의 기도, 강자현 장로(공동회장)의 성경봉독(요 3:16)에 이어 김동권 목사(대표회장)가 ‘관심의 중요성’이라는 제하의 설교 후 최병두 목사(상임회장)의 축도 순으로 마무리했다.

대표회장 김동권 목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세상과 동행하신 소망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회복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이 세상은 진실이 아닌 선과 악이 공존한다.



가것이 난무하는 혼돈한 세상과 단절해야 산다”라고 증거했다. 김 목사는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 때가 차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한 구령 열정이 주님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면

죽는다”라며, “자유지 방종에서 벗어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자”고 당부했다.

소망교도소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세운 교도소로 2010년 12월 1일 개소한 국내 유일 한 민영 교도소이다.

KWMF, 다음 세대 선교 비전 모색

“복음으로 다시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

한인세계선교사회(대표회장 방도호 선교사/ 이하 KWMF)가 내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천안 고려신대학원에서 차세대 선교동원전략 대회를 개최한다. KWMF는 전 세계 168개국에 흩어져 사역하는 22,2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비공식 3만 여명)들의 친목과 정보교환 및 세계복음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다.

이번 대회에는 MK 선교사 자녀들, TCK(Third Culture Kids) 3국선교지역 자녀들, PK 국내의 목사 자녀들, LK 국내의 평신도 자녀들, 귀화한 디문화 속에 자란 1세대인 선교사들을 초대해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선교학 전공 선교 전략기틀, 파송 선교단체들과 각 교단의 선교부 차세대 담당 사역자, 120여개국의 선교사들 중 차세대 선



교에 헌신하여 사역하는 선교사, 100여 명의 선교목사 및 선교에 헌신하는 담임목사 등 500여 명을 함께 초청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위해 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한 선교사 초청 회의를 대회 1주일 전에 갖고, 주변지역 교회들을 방문해 다음세대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리크루팅운동과 라바이벌 멘 세우기 운동으로 선교지역과 선교시를 보내 나라들과의 동반자적 라바이벌 운동을 강조하고 선교사들도 겸허하게 리더십을 이양시켜 가도록 한지인 선교사 세우기 운동과 라바이벌 멘 세우기 운동으로 일관하여야 하는 봉사도 가질 계획이다.

전북으로 떠나는 종교문화 여행

전북의 감동적인 선교역사 현장... 성지순례와 함께 맛집 투어도 겸해



성지순례 전북 여행사인 ㈜돌봄여행사(대표이사 김경관)가 전주와 완주 군산과 김제의 기독교 성지를 둘러보는 종교문화 힐링 여행상품 ‘전북순례길’을 내놓았다.

“전북순례길에는 소외의 땅에서 복음화율 1위 지역으로 거듭난 ‘한국의 길거리’ 전라북도의 감동적인 선교 역사의 현장과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그 선교 역사의 현장에는,

전주한옥마을과 새만금 바깥길, BTS 마실길 등도 포함돼 있어 더욱 관심을 모은다.

1코스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 반경 2km 구간을 잇는 순례길이다. 전라북도 선교 130년사를 조망하는 전주시근대역사기념관을 출발해 한강 이남 최초의 근대식 의료시설인 예수병원과 학생 항일운동의 중심지 신흥학교를 거쳐 김민전 목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

가를 배출한 전주 서문교회, 남문교회에 이르는 코스는 전주의 ‘바이블 벨트’로 불린다.

2코스는 전라북도내 60여 교회를 개척한 마로덕(루터 올리버 맥커전) 선교사의 길을 잇는다. 123년 역사의 완주 위봉교회를 시작점으로 한국전쟁 때 희생당한 성도들을 추모하는 순교비가 세워진 학동·수만·신월 교회 등을 순례하며 마로덕 선교사의 발자취를 찾아간다.

3코스는 ‘근대도시’ 군산과 김제를 연결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술한 수탈의 아픔을 겪었지만, 복음으로 치유돼 다시 일어난 두 도시의 역사를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따라가 본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이 자리한 군산 근대와 거리를 가로지르면 이빨렌터순조기념관을 마주하게 된다.

세계 최장 방조제로 가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33.9km)를 내달려 만경 평야에 다다르면 ‘노아의 방주’를 본떠 지은 김제 죽동교회를 볼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 예배 탄압, 책임 묻겠다”

문재인 전 정권 및 서울시에 피해 보상 촉구 밝혀

코로나 당시 교회의 예배만을 과도하게 제재했던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고발이 시작됐다.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총연합회(이하 지교총)와 국민특검단은 지난 7월 17일(월)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로 한국교회를 탄압한 문재인 전 정권과 서울시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는 한국교회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예배를 중단시켰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부트렸던 정치계의 유례없는 종교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교회는 일제시대는 물론 6.25 때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페르스·사스를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예배드리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마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산 근원지인 마냥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 문을 폐쇄했다”며 “이로 인해 대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척교회 및 미지리 교회는 대면예배 금지로 인해 재정조달이 어려워 수도 없이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국민특검단 고영일 변호사는 당시 정부와 지자체의 편향적인 탄압을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교회의 예배는 제한하면서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제한하지 않았다. 한밤에 보정된 종교의 자유가 무너졌다”라며 이러한 정부의 제재로 1만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목사는 “정부가 예배를 불법으로 몰았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공산주의자들이 이를 불법이라 주장했다”며, “이는 결국 광화문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예배를 탄압한 것이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사)장애인문화예술협, ‘장애인 희망 콘서트’ 개최

우중에서도 뜨거운 사랑의 선물로 장애인들 위로

(사)장애인문화예술협(이사장 오상식)가 주최하고, (재)빛과사랑공동체(대표 오상식, 총재 양창부 목사)에서 주관한 ‘장애인 희망나눔 콘서트’가 지난 7월 13일(목) 오후 2시 과천 경마장 본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프레슬리, 박일준, 김상배, 오은정, 난타, 백지윤, 금지원, 복단지, 오명희, 송현악순, 한우리 등이 출연하여 공연을 했다. 이번 장애인 희망나눔 콘서트는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이날 출연진들은 장막바가 내리는 가운데서 열정을 다해 연주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빛과사랑 선교회는 1998년 소외받고 외면받는 장애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 출발했다. 오상식 목사는 1970~80년대 미 8군 그룹시운드로 활동하였고, 후에 솔로로 독립하여 ‘화니보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다가 80년대 중반부터는

영 앤젤스 패키지뮤지엄으로 활동하고, 1987년에는 버거스병으로 10여 차례 수술을 하면서 양손과 발을 절단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

예장합동중앙, 원로목사 초청기도회

교단 어른 목사님들, 기도하는 어른 되시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총회장 조옥선 목사) 산하 농어촌선교부(부장 심재희 목사)가 주관한 2023년 원로목사 초청기도회가 지난 7월 21일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소재 초석교회에서 총회·노회 및 각 기관 농어촌선교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원로목사들을 초청해 열렸다.

1부 예배는 농어촌선교부 부장 심재희 목사의 사회로 선교부서기 김현은 목사의 기도, 김효순 목사의 특송, 김지혜 목사의 위도, 총동문화장 김경애 목사의 시 90:8-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물길의 꽃과 갈대’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애 목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덧셈해야 한다.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신다. 그렇지만 예 볼 수 없을까. 죄 때문에 안보일 뿐”이라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인생은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고이다. 심지어 외에는 세상에서 지랄할 것이 없다. 교단에 이른인 원로목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계속된 예배는 선교회 회계 김효순 목사의 헌금기도, 설립승계자 강요이 목사의 격려

사, 총회장 조옥선 목사의 인사말, 총동문화부장 박재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기도회에서는 원로목사회 회장 홍종성 목사의 인도로 ‘세계선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총회와 신학목회연구원을 위하여’, ‘각 기관 상비부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했으며, 병상에 있는 상임총회장 전병권 목사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나사렛대, ‘취업을 위해 우리는 한 팀!’

장애·비장애대학생 통합 취업캠프 열려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지난 7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충북 증평군 벨포레리조트에서 ‘2023년 장애·비장애 대학생 통

합 취업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나사렛대학교 장애·비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18명, 비장애학생 13명을 비롯 장애유형별 전문담당자 및 전문도우미(수어통역사, 속

기사) 전담취업지원관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취업현장에서 겪게 되는 조직적응, 대인관계, 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위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팀으로 ▲자기이해 코칭 ▲취업역량강화 특강 ▲자신감 향상 프로젝트 ▲그룹별 모의면접 등 학생들의 개인별 강점을 발견하고, 산업의 이해도를 높여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들로 캠프에서 진행되는 모든 취업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센터장 홍경훈 교수는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교육인 이번 취업캠프는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 이외에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사랑,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국 11곳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 드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는 지난 6월, 전국 11개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를 드려 1,127명의 성도가 장기기증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에게 한국교회와 앞장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이다.

지난 6월 18일, 세종 공의교회(대표목사 안희복)는 총 4부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드려 병마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침례교회 중 하나인 꿈의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품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20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생명나눔



예배를 드린 꿈의교회 안희복 목사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명나눔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자”라고 권면했고, 그 결과 664명의 성도가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생명

나눔예배를 통해 총 1,230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함께한 꿈의교회는 생명나눔 문화활성화에 앞장서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옥수교회(남기환 담임목사)에서도 지난 6월 4일 생명나눔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눴다. 이어 본부 김동영 목사가 강단에 올라 각막이식인 서지원 씨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강호 목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장기기증의 가치와 참여 방법 등을 알려 이날 성도 103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옥수교회 역시 2008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려 총 176명의 성도가 생명나눔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 생명의 말씀 ■



김종열 목사

· 서울강남지방회 전임회장
· 참사랑교회 원로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뿌리에서 예수가 탄생되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간 흉년이 들 때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므로 창 15:13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창 15:13)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민족 200여 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단행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수 3:7-10)

가나안이 건너에 보이는 모압에서 임무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대권을 맞게 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수 1:5-6)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단강가 30리 거리에 있는 싯딤에 정막을 치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합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본제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필요가 있었었습니다.

1)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십니다(수 3: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수 3:7)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넌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을 이스라엘도 알고 이미 가

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듣고 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증거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용기를 주고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위협을 하자는 의도입니다. 본문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지만 정탐꾼의 보고처럼 그림의 떡 같은 곳입니다

장마로 인해 건널 수 없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홍수 중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권위로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가졌고 가나안 족속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인해 강성한 일곱 족속들도 능히 물리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세웁니다(수 3:8-9)**

“너는 언약궤를 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르 외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하고”(수 3:8-9)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물이 범람하여 아무도 건널 수 없을 때에 제사장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상향을 보고

너 가나안 족속을 만나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해야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떼 제사장들이 강물 중간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떼 제사장들이면 나중에 물으로 올라오자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심으로 총리가 되었고 엘리야 시대에는 왕과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시므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우상을 타파하므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므로 생육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못할 일이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 교회부흥에 감동하여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부흥은 하나님도 바라시는 바며 모든 교회가 목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부흥을 목표로 세우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중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가득하고 나는 없는 것과는 있고 성도가 하나도 없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래?”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어주소”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있는 강단에 불이 떨어지면 불이 없어 머뭇거리고 떠나갔던 백성들이 불을 보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가 없다.

그러니 학생들이 잘못을 해도 책망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질한 학생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다. 교사들은 교육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인권조례에 걸리지 않나 조심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야말로 날마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좌파·진보 교육감들에 의하여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10여 년이 지났지만 부정적 파장이며 폐해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매를 맞고, 학생들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듣고, 거기에는 학부모들에 의한 과도한 민원과 학폭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사명감으로 일할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모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올바른 인권이라면 남의 인권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인권을 학생들이 해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정작서 사고인가?

동 정

충남기총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는 최근 충남도청에서 학생인권조

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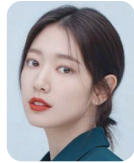
다.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충

남기총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초임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했다.

구호물품 기부 배우 박신혜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배우 박

신혜가 집중호우 피

해 이재민을 위해 1

억 원 상당의 구호물

품을 기부했다고 지

난 7월 25일(화) 밝혔다. 박신혜는 집중

호우 피해지역을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

던 중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지 상황

을 접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게 필요한 여름 이불 2,000채(총 1억 원

상당)를 선정해 기부했다.

하와이한인기독교독립교회 보존



이승만 하와이한인

기독교독립교회(서울)

보존추진단(단장 최

은경 목사)이 최근 백

주년기념관에서 ‘정전

70년 우남의 신앙적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하와이한인독립

교회 기독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최 목

사는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하와이 기독

교 독립 운동가들과 뜻을 모아 교회를 세

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복음통일 선교 컨퍼런스 개최



미주글로벌복음

동일전문화네트워크(대

표 임원수 목사, 사무

총장 박상원 목사가

미국 달라스배나장

로교회(담임 장햇살

목사)에서 현지 시간 오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4차 글로벌복음동일 전문

선교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번 컨퍼런

스는 ‘MZ 세대를 깨우는 미주 디아스포

라 복음통일연합 전략’을 주제로 연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교권 침해의 핵심과 주범은 학생인권조례이다

최근에 서울의 모 초교에서 20대 초반의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의 무거운 짐이 있음을 항변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직임을 가진 교사들을 위로하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을 찾아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원 사망자수는 623명이다. 그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11%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상당수가 교사로서 학내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 교사 1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무려 87%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지난 1년 사이(2022.3-2023.4)에 퇴직한 교사가 12,000명

으로 역대 최다라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 마디로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권이 없는데, 어찌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었는가? 이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인권은 무한정 보호받는지 몰라도,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시달림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09년 진보 성향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김상곤 씨는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박노현-나중에 서울시 교육감이 됨)를 만들어 준비하여, 2010년 9월 16일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시작이다.

그 이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1월 26일에 공포되고, 광주광역시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라북도도 2013년 7월 12일 공포하고, 충청남도도 2020년 7월 10일 공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도 2021년 1월 8일 시행되고, 인천광역시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좌파·진보교육감들이 있을 때 제정된 것이다.

이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대략 23가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중에는 임신과 출산, 가족 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조항이 들어간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여성 인권단체, 노동단체, 편향된 정치 정당이 요구한 내용도 포

함되었다.

그리고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체벌 금지, 보충수업 강제 금지, 복장 용모 자율 보장, 휴대폰 사용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히려 학습 능력과 학생들의 입장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망가뜨리고 지나친 학생 권리만을 강조한다.

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사들이 어려워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 차별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 또 ‘휴식권’이 있다고 수학여행을 같이 가지고 하여도 교육 활동을 강요했다고 이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라고 하여 학생이 교사 옆에 누워서 전화를 사용해도 말릴 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 부흥사 단합대회 및 태국 단기선교



| 일 시 | 2023년 9월 17일(주일)~9월 22일(금) 오전

| 장 소 | 태국 방콕인근 선교지교회 (선교사 김학봉 목사)

| 후원금 및 부흥사회 회비 입금계좌 | 농협 352-1641-6150-13

(예금주 : 조길수)

| 태국선교전용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053587200

(예금주 : 오세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2023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청소년연합수련회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사람' (행 13:20-23)

한국교회의 미래 믿음으로 짊어진다

2박 3일간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에서 열려
총회장 김병목 목사, 정영진 목사 등 청소년들에게 비전 심어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교육국(국장 조진남 목사) 주관 2023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대회장 김병목 목사)가 지난 7월 30일(주일)부터 8월 1일(화)까지 2박 3일간 대림벤엘교회(당회장 정부웅 목사, 담임 조진남 목사) 평창수양관에서 전국에서 모인 중·고등부 청년부 청소년들이 하나 된 가운데 열려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과 함께 은혜충만, 말씀충만, 성령충만한 시간을 함께 했다.

전국에서 지방회 산하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성령의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무더위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 2박 3일간 계속된 이번 캠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행 13:20-23)이란 주제 아래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품고 깨어 기도하며 세계를 향해 도전해 나



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프에 전국 각 지방회 소속 교회별로 참여한 청소년 2백여 명은 2박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과 하나가 되었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

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감지연 약사의 특강, 전임 서기 정영진 목사, 서기 임형순 목사의 '성령집회' 설교, 배윤호 목사의 인도로 '보이는 라디오', '공동체 훈련', 허은희 목사의 간증 및 시상

등 다양한 순서와 함께 이번 캠프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뜨거운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한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거운 기쁨으로 기도하는 청소년들의 믿음의 열기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었다.



평창수양관



교회의 본분을 지킬 것 다짐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7월 17일(월) 오전 11시 나리전주순복음교회(담임 박성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호 목

사(합라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서기 김희수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기도, 김상운 목사(성광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전 12:13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신부된 교회가 가져야 될 본분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어 증경회장 표재욱 목사(성령말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익산 은혜와진리교회)의 인도로 지방회 소속들을 전달하고 안건들을 처리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나리전주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차를 마시고 교제시간을 갖고 각자 목양지로 돌아갔다.

주예수소망교회 이전 감사예배

일산지방회

일산지방회(회장 조영란 목사)는 지난 7월 3일(월) 오전 11시 주예수소망교회(담임 양호철 목사)에서 교회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신종임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이진우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조영란 목사의 장 6:14, 히 1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방주를 지은 세 가지 재료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였고, 회계 권도진 목사의 헌금기도, 전임회장 서영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양호철 목사가 준비한 다과와 식사를 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와 교회의 할 일’ 특강

김승규 장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 점검

인천지방회 확편순복음교회에서 세미나 개최



김승규 장로
전 국정원장



정진균 목사
인천지방회 전임회장
확편순복음교회

인천지방회 전임회장 정진균 목사(교단 총무)는 지난 7월 16일(주일) 확편순복음교회(담임 정진균 목사)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를 강사로 초청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와 교회의 할 일’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출산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점검해보

고 우리들의 할 일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는 세미나에서 “저출산문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대단히 중요하다. 대한민국 저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 서울은 0.5%이다. 곧 군대와 학교가 문을 닫는다. 교사들이 직장을 잃고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사업인력을 구할 수 없게 된다. 95년 출산율이 1.5%에서 2022년 0.78로 줄어든 것이다. 일본은 1995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모색해 현재 1.3명이다. 현재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27만명 들어와 있다. 영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무슬림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김 장로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애는 55만 명이며 이것이 저출산의 한 이유이다. 급진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결

혼을 거부하고 비혼주의를 주장한다. 그리고 애원동물을 좋아한다. 현재 우리나라 애원동물은 544만 마리이다.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에서 자유로운 성을 가르친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저출산 해결책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교회가 돌봄센터를 운영해야한다.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3.8명이다. 교회는 시 127편을 자주 설교해 가정과 출산을 독려해야한다. 2.1명을 낳아야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회 전임회장 정진균 목사는 이단사이비 대처,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세미나를 통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아울러 정진균 목사와 성도들은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알리고 평가하게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한 금란교회 사역훈련원장 이호 목사(국회조찬기도회 강사,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크 대표를 강사로 확편순복음교회에서 거룩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승만’이란 주제로 특강시간을 연이어 갖고 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인천지방회는 지난 화기동관 한국교회의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회에 침투해

오는 이단사이비의 대처를 위해 2021년 6월 진영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7호 3면)를 가졌으며 11월에는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등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온갖 사회 악법들이 밀려오고 있

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할지 김지연 약사(영남신학대학교 특임교수)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8호 3면)를 갖고 한국교회에 침투해오는 이단사이비와 전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6.25 전쟁 중 과병 필리핀에 감사... 예수님의 사랑 나눠요!

4박 5일간 필리핀 파나이 안티케주 지역 복음화 위한 단기선교 스펠라세계선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필리핀 크게 사용하실 것



최정식 목사
스펠라세계선교회 회장
광주신학교 학장

스펠라세계선교회(회장 최정식 목사, 광주광역시 북구 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광주신학교 학장, 광주지방회 전임회장) 최정식 목사를 비롯 15명의 회원들은 지난 7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4박 5일간 필리핀 파나이 안티케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도 준비해 오던 중 코로나 감염병 해제로 하늘길이 열려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파나이섬 서부에 위치한 농업과 임업,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넉넉지 않은 이 지역에 3년전 건축한 스펠라월드센터 현지 목사 가족과 지난 3월 파소

안 김몽수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지원했으며 연합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질병, 연약, 고통을 모두 제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스펠라선교회는 이번 단기선교에서 5백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류 및 신발 등 선교용품과 현지인들에게 쌀과 빵 등 35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역 농구장 연합집회 참석자 약 800명에게 전달했으며, 2개 지역 교회개척을 약속하는 등 풍성한 선교일정을 마쳤다. 5명의 목사와 비자담을 흘리며 십자가의 피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현지인들의 반응은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며 함께한 사

모들과 성도들의 노방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생한 현상이 되었다.

연일을 저녁에 이어진 연합집회는 시골 마을인데도 군수와 면장이 적극 반겨주고 동참한 귀한 시간이었는데 회장 최정식 목사는 “필리핀에 올 때마다 여러분과 여러분 나라에 감사함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이 6.25 전쟁 중에 있을 때 UN연합군과 함께 많은 군인을 보내주셨고 전쟁 후 재건을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을 때 서울강동동에 체육관과 광주에 군 공항을 지어주셨다며 대한민국은 필리핀에 많은 빛을 쬔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 목사는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된 것은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으며 기도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역설한 뒤 “필리핀의 원조도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고 예수님의 명령인 그분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했다. “지금 필리핀에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그리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라. 여러분과 필리핀에 처해있는 상황들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므로 여러분이 믿은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필리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특히 크리스천 중에서도 성령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등과 대립에서 화합의 정치로, 북한 핵 야욕 철저히 봉쇄

“2023년 제 7 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1571에 소재한 에렌교회(담임 이광로 목사, 부회장)에서 개최하고 갈등과 대립 상태의 정치권이 화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북한 핵야욕을 봉쇄하기 위한 한미 공조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차추령 목사(예원신학개발대표)의 사회로 제7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기독교포럼대표 김원진 목사의 대표기도와 차추

령 목사의 성경봉독, 윤희환 목사(세남산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희환 목사는 약 5:13-18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병들어 있는 민족과 아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땅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르러 민족의 기도를 드릴 때 병들어 있는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아산시도 30%가 넘는 복음의 도시가 되도록 다시 기도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독교포럼 회계 차영한 장로(택민교회)의 찬양기도, 분회 본부장 김수홍 목사(사문감리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 순서를 마쳤다.

이어서 2부 기도회 순서로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아산동산교회)의 사회로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먼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예방중앙교회)는 환영인사를 통해 “2023년 제7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에렌교회 이광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와 민족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최우선임을 믿고 이른 아침에 참석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후에 지금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순수하게 기도할 때이기에 오늘 뜨겁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며 환영사를 마쳤다.

이어서 박하식 원장(충남평생교육원인재육성진흥원)의 ‘교육의 새로운 지평, 글로벌교육과 평생교육’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박하식 원장은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 교육을 넘어 평생 교육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학교 졸업이 공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평생학습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누구



나 언제든지 자신의 자치실현과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돕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 교육바우처 제도를 제시하여 이런 기회를 통해, 이 세대와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3부 기도회 순서로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택민교회)의 사회로 기도회를 가졌다. 1)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기도 인도는 분회 부회장 서석웅 목사(아산성결교회), 2)나라를 위한

기도 및 대통령과 여·야 위원장을 위하여는 이광로 목사(에렌교회)대표, 3)아산시 발전과 복음화 그리고 아산시 420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정팔 목사(상임회장, 택민교회), 4)경찰복음화를 위하여 기도는 조창훈 목사(영철대학교교목, 경찰인재개발원교회), 5)사회적 약법 제정 반대를 위하여 한상문 장로(은암원감리교회), 6)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정훈화 목사(공동회장, 하늘비전교회) 순으로

기도를 드리고 끝으로 참석자의 합심기도로 마쳤다.

이어서 사무총장 이진희 목사(주님의제자교회)의 광고와 사진촬영을 한 후, 에렌교회 이광로 목사가 준비한 조찬점심으로 이동하여 조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지므로 제7차 조찬기도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여호와와 기(旗)를 세우라!"(출17:15)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창립50주년기념 및 헌당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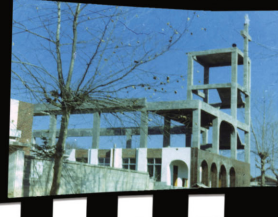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교단 정책위원장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2023년 8월 15일(화) 오전 11시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대성전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 활동 마쳐

굿네이버스 경기동남지부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굿네이버스 경기동남지부(지부장 김성찬)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Global Youth Network)’ 4기 활동을 마쳤다.

지난 7월 20일(목) 온라인으로 진행된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 4기 클로징 세리머니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 소그룹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1개국(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11개국(나제르, 르완다, 말라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차드, 케냐, 카메룬, 탄자니아) 총 23개국 69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굿네이버스의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천 523명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활동했다.

이번 4기 프로그램은 교육부, 외교부, 환경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의 후원으로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진행됐다. 굿네이버스 경기동남지부에서는 신갈중학교와 흥덕지역아동센터 총 11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구촌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받고, 잠비아, 스리랑카 청소년들과 실시간 비대면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상황을 공유하며 기후위기 극복 방안 등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해피해지역에 한국교회 희망밥차 운영

한교봉, 무료급식 외에 세탁차량 지원 이재민 도와

한국교회봉사단(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이하 한교봉)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18일(화) 가장 피해가 심한 경북 예천 지역을 먼저 방문하여 수해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가 있는 각 지역의 기독교연합회를 통해 한국교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하며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한교봉은 20일(목)부터 3일간 익산지역에 한국교회 희망밥차를 파견했다. 익산지역은 이번 수해로 침수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택 등의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군 병력이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 정리하고 기름 제거와 침수 가옥 및 도로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한국교회 희망밥차는 27일(목)점심부터 29일(토) 점심까지 익산 망성제일교회에서 운영되며 21일(금) 점심에는 한교봉 임원이 함께 참여하여 도시락 배달활동을 전개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오직 하나님께 영광

천상의 신록 앞산을 적시는데,
천상의 향기 취한 산새소리에
웅달샘까지 하나님의 영광 화답하네.

아, 그리운 천상의 기쁨이여,
생명의 신비여,
지혜로운 등불 준비, 순결의 신부되리라.

신록의 지평언덕 여명이 밝아오면
새벽은 어둠을 흡치듯이
시간의 진실은 어둠의 가면을 벗기리라.

아, 찬란한 천국열쇠여
이곳에 주님의 몸 세우셨네.
축안의 풍령이여,
너 예수님의 빛 앞에 잠잠하라.
주께서 명하셨다.

교회여, 생명이여,
온누리 깊고 높푸른 하늘의 영광 찬양하라.
이곳에 오는 이여 주의 평화있으라.
이곳에 머무는 이여 주의 기쁨있으라.
이곳을 나서는 이여 주의 축복 누리소서.

아, 그리운 영혼의 고향,
영원한 안식처, 축복의 전당되소서

아, 복된 주의 몸이시여,
거룩한 주의 입재 넘치소서.

주의 감동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진리의 전당이 되소서,
진리의 전당이 되소서.

쉽 없이 2년째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위대한 약속교회에서
가족세트 대성회를 진행 중이다.

천년제 집회를 드리는 임미향 원장,
같이 협력하는 윤재민 목사,
이제는 온전히 전도자가 되어
세계선교에 비전을 갖고
사방에서 복음을 외치대는
거리 전도자가 되었다.

싱글벙글 찬양하며 외치는 복음의 소리는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리라.
위대한 약속교회 위에 박수를 보낸다.

가족세트전도 본부장 사인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6.25전쟁 특별 사진전’ 개최

한국정직운동본부와 송촌장로교회, 역사 바로 알기 일환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이사장 박경배)와 대전 송촌장로교회(담임목사 박경배)는 한미동맹 70주년에 즈음하여 2023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송촌컨벤션 센터에서 ‘6.25전쟁 특별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월드피스자유연합 대표 안재철에서 특별히 제공한 사진으로 전시회를 가졌으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한 사진들이 많아 관심을 모았다.

재미교포인 안재철 대표가 소장한 이번 전시회 사진들은 안 씨가 지난 2001년부터 개인 비용으로 세계 각국으로 직접 참전용사들을 만나며 구입한 사진들로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매우 소중한 자료들이다.

특히 전시된 사진에는 6.25전쟁과 관련하여, 기네스 세계 신기록으로 등재된 1950년 12월 흥남 철수 작전 당시 미국 화물선 매더리스 빅토리호의 1만 4000명 구출 사진도 포함됐다. 당시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세계 최고 기록이다.

또한 사진중에는 1950년 9월 29일, 서울 중앙청 2층에서 서울환도식 행사에 참석하러 계단을 내려가는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의 모습도 있다. 맥아더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서 내려가는 모습으로 이채롭다.

이와함께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당시 개마고원 지대의 3,0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철수하는 미해병 1사단 캠프 근처에 몰려 드는 사진도 눈에 띈다. 영하 20~30도의 날씨에 피란민들은 미군들을 따라가면 자유세계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따라나섰다.

무엇보다, 이번 사진 속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미군의 동정을 알 수 있는 사진이 있어 주목받는

다. 1951년 6월 11일, 부산 부민동의 행복산 보육원의 아이들이 약기를 연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다. 사진 뒤의 배경에는 “The Future of KOREA, like any other GREAT NATION, is dependent on the EDUCATION and WELFARE of the children TODAY!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달려 있다)”라고 적혀있다.

월드비전과 (주)수프로,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26일 (주)수프로와 기후변화 사업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 영등포 월드비전 본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최순영 본부장과 수프로 채일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순수 탄소 흡수원인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에 힘을 보친다. 또한 월드비전과 수프로는 해당 사업의 중요 분야인 양묘의 외부 전문기술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증대하고, 사업 담당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월드비전은 코이카와 함께 케냐 차보 생태지역 복원 기반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08억원의 규모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해당 사업은 ‘주민 참여형 경관 복원 과 ‘지

속가능하그린 비즈니스 창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지원 활동을 통해 케냐 남부 카지아도 및 나록 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최순영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및 양묘 분야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토대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놀성물질

1 손상된 신세포치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임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키펜롤린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 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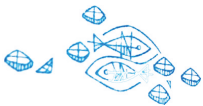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는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우리나라 해방의 역사



35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일본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사건이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 전역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가지로 우리 민족도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원자탄 두발로 그냥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이 독립군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 운동 하는 것을 보니 해방시켜주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방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임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통하여 원자폭탄이라는 죽음의 사지를 보내서 일본을 지켰기 때문에 해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전에 애굽 전역이 이미 초토화 되었습니다. 짐집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장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그 엄청난 재앙이 있을 후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일제가 이미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는 날마다 미 공군의 폭격으로 초토화 되었으며, 결정적인 것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인하여, 수십만 명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짐으로 일본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고 전쟁할 의지도 완전히 꺾인 후에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왕 바로가 무말 할 수 없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왕 히로히토 역시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전국 방송으로, 떨리는 음성으로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일제 식민지하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 역시 해방시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1945년 8월 15일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 136:23-24)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깨달음 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깨달음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수 없습니다.

그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진주같은 보배들입니다.

비바람 맞으며 찾아낸

소중한 보석들입니다.

아닙니다... 깨달음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진리이신 그분 안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말씀에서 깨달음으로 나를 찾아오시어

그 엄청난 일들을 나누며 살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살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클로즈업 될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본다.

사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청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혜현장에서는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젊은이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죽음이 불가피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가 붕괴하고 있는 모습 같아서 안타까운 것이다. 이런 연이은 죽음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독점과 남용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공공 서비스도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재가 안락으로 남용되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필요하고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조직과 시스템이 이를 차단하고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책임만 지우며 보호해주지 못하는 조직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유속 때문에 잠깐지도 나온 물에 해병대원들을 구명조끼도 입하지 않고 수색을 시킨 군 당국, 입이 열게 라도 할 말이 없다. 지시 잃은 부모의 슬픔을 참적(慘惻)이라고 한다.

충무공 이순신은 아들 ‘현’의 전사 소식에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무슨괴상한 이치란 말이나’라며 오열했다. 지시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가늠이나 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과 미안함만이 앞서기만 한다. 여기저기에서 부모들의 역정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온 나라에 가득하다.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들을 들여다보니 기가 막다.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쪽 빼고 2010년 김상곤 교육감시절(경기도) 국내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이미 교사들의 비극은 싹트기 시작했다. 진보교육감들이 동정한 조례다.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미국 최대 교육 규류 욕서의 ‘학생권리장전’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미국의 권리장전에는 학생들의 권리와 함께 책임 및 의무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강조돼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는 쪽 빼고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균형을 갖추지 못한 조례라는 비판을 받았다. 즉 한국과는 전혀 다른 미국의 조례인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했다는 뜻이다.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에는 첫줄부터 ‘교직원 존중’이 강조되어 있다. 책임을 위반할 때는 징계를 명확히 밝혔다. 두발 자유와 휴대전화 사용도 학습권 침해 댄 즉시 제지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렵다 없다.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행위도 휴식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제지를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즉각 제지를 한다. 불응시에는 교사나 교장이 교실 밖으로 쫓아내거나 부모 상담, 반성문 작성, 정학 처분 등 단계별 훈육, 지도 규정을 받아야만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나타나지

한국에서는 교사나 고소를 당하면 경찰과 검찰수사로 고통을 받아야하고 아동 학대 라는 꼬리가 붙으면 조사를 빨리 끝내지도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교육청도 별도 조사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청이 교사편이 아니라는 말이다. 교사권리가 철저히 무너진 한국 교육현장에서는 가르치는 교사에게 무리한 것을 해도 방법이 없다.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교육을 받고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에게 폭행을 하고 욕설은 기본이다. 17개 교육청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의 인권조례가 약명 높다.

2010년 경기도 좌파 교육감에 의해 처음 시행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에게 비극의 시작이 된 것이다. 이게 나라냐? 학생이 교사를 두들겨 패는 나라?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만일 자기 말이 교사였다면?

학부모의 민원은 잘 사는 동네일수록 심하 된다고 한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지만, 어떤 때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학교 현장은 지식을 배우는 곳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고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 6:6) 말씀하고 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배성환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제78주년 8.15 국가기도회 및 특별세미나

주 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일 시 2023년 8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장 소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TEL. 02-763-9746

대회장



이 광 욱 목사
(사)예장총연 대표회장

설 교



조 욱 욱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특별강사



피 중 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원로목사

격려사



김 성 영 박사
성결대학교 전 총장

격려사



강 춘 옥 박사
(사)한국기독연론 목사회 이사장

축 사



김 인 식 목사
한국기독교원로 목사회 대표회장

축 도



김 기 형 목사
(사)예장총연 고문

제1부 사회



권 영 자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한기여총 대표

제2부 사회



안 병 삼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대표기도



원 동 인 목사
(사)예장총연 법인이사

2부 기도



김 상 돈 장로
낙산초등학교 교장

특별기도



김 병 선 목사
(사)예장총연 법인이사

특별기도



지 광 식 목사
(사)예장총연 법인이사

특별기도



이 후 현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특별기도



이 중 순 목사
한기여총 총정북도 지부회장

특별기도



오 선 미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특별기도



하 석 수 목사
(사)한부연 법인이사

성경봉독



문 기 북 목사
한기여총 이사장

헌금기도



김 순 종 목사
(사)예장총연 법인이사

찬 양



김 지 혜 목사
한기여총 총예술기획 대표

특 승



박 명 희 단장
GOOD TV 소울코어

대 회 조 직

■ 고 문

김순종 강성도 김기형 맹영수 김광본 정태래 김수영 영철호 이태주

■ 대회장

이광욱

■ 공동준비위원장

권영자 안병삼

■ 합동준비위원장

조요한 이후현 오선미 하석수 원동인

■ 준비위원

영철호 황대영 이태주 민철진 정호석 손영미 김태지 이광욱 송영환 박동용 강성도 김요나 김용현 김영복 최영철

■ 공동회장

고정수 악도영 권혁은 권영자 김남식 김병선 김수영 김요나 김태지 김상근 김성태 김성종 김연수 김원배 김용현 김연배 김운식 김국식 김용진 김광균 김용규 민철진 맹호길 박동용 박영성 박요한 변건성 박종선 박원숙 박용기 박 장 박민석 박광진 박경자 류현상 서성현 사수일 송영미 송영환 송 현 이두선 이무선 이봉구 이원호 이원일 이문숙 이태주 이상대 이송주 이복자 이석주 오철호 유진혁 윤병희 윤영숙 윤환선 윤 문 미 안영선 원정배 우원우 인사각 지광식 조요한 조이열 주영일 정성일 정순희 정영성 정용수 정희선 정혜선 조규연 최요한 최병숙 최병남 최순애 최현수 한규권 한원우 허여미

■ 지도위원

김순종 강성도 김기형 맹영수 김광본 김능복 김덕미 김문진 김만수 김성순 김요나 김은영 김윤진 김용현 김치현 김태원 박정자 강성종 계승철 오성훈 박건배 박미혜 박관식 박동용 박성일 박요한 박영성 박종훈 박혜영 변영국 박정숙 박종훈 송영환 송호섭 이규애 이연희 이무용 이광욱 이신애 이성문 이성표 이성순 이문숙 이원숙 이영숙 이창용 이재홍 이연고 유관태 유원희 유자현 윤미혜 원종숙 손우유 정종삼 정석희 정순석 조도환 조이열 조영훈 조남숙 정영순 정순식 정효선 최희희 황정수 홍순환

■ 총 무

김광태 김경숙 김근수 김태희 김바울 김성호 김순복 김석재 김영록 김운식 김경복 김원숙 김원수 김원희 김인숙 김중도 김준태 김중훈 김진숙 김치현 김봉주 김기봉 강사명 그대원 그대원 계승철 남상배 남주석 문소영 문인숙 민광순 박보배 박기태 박영선 박건자 박일하 박지현 박정원 박정원 박건섭 박용수 박원숙 신상규 서상진 서승일 서영진 서원화 송봉남 송정목 이미자 이시영 이순자 이성수 이상원 이광영 이영일 이원호 이윤규 이진호 이주호 이창용 이창진 이원경 이현숙 이윤규 이홍노 임만도래 유재연 윤진표 윤보훈 윤임성 윤임성 안영순 안지석 임미경 임진화 염마복듯임 조규연 조영애 조문호 조근자 전정민 전근관 정지영 정희일 최광열 최영숙 최희희 최현봉 차승민 차병희 홍정희 허수복 허도경 허용현 현원환 현원국

■ 합동총무

김원복 김태길 김만복 김이선 김성태 김성기 김병수 김원주 김원숙 김재관 김영은 김철수 김에스터 김태곤 김태석 김형준 강홍식 권오일 권종택 남성이 박숙자 박영성 박병철 박형진 박형숙 서호준 선석만 손정섭 송형자 신혜수 이명자 이명우 이시랑 이정원 이광정 이훈식 이훈우 이현우 이현하 이원길 이원표 안선영 우영광 유수현 윤보훈 윤정배 윤규석 오순환 한성훈 조근자 조원형 조예순 조원석 정기천 정기호 정규원 정문순 정영숙 차진자 최수영 최영복 한성자 한성훈

■ 총괄총무

지광식

■ 서 기

김영복

■ 회 계

하석수

■ 감 사

최희철

■ 본과위원회

●기독교위원회: 지광식 · 사기: 서영진

●위임: 김광태 김바울 조규연 윤복림 김미자 이하나

●예배분과 위원장: 이후현 · 사기: 전진귀

●위임: 김순애 계영환 이순자 박정숙 김철호 최순애

●봉사분과 위원장: 김순숙 · 사기: 정희일

●위임: 김경숙 김현숙 박정원 박경자 조영화 전희일

●홍보분과 위원장: 최요한 · 사기: 홍순환

●위임: 차승민 김인숙 김태희 정기천 이정원 정진순

●사회분과 위원장: 원동인 · 사기: 정호석

●위임: 안병희 장운영 정기호 김성태 송형자 현원환

●여성분과 위원장: 오선미 · 사기: 윤환선

●위임: 정영성 문인숙 이문숙 김철은 송정목 조영혜

●재정분과 위원장: 하석수 · 사기: 이무선

●위임: 김계숙 김지현 홍희희 주시영 박복분 이창진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70개 교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1길 6, 2층 / TEL: 02-706-2970~1, FAX: 02-706-2990

● 협력단체 :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 ● 협 찬 : CTS기독교TV · 복음신문 · 교회연합신문 · 목양신문